

3월 11일 박환무 선생님은 '왕이 공녀를 따먹으면..'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. '따먹는다'라는 표현은 다른 이가 한 말을 옮긴 것도 아니었고,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사용한다 라고 소개한 것도 아니었고, 수업 내용을 강의하던 도중에 박환무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. 그 말을 듣고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'선생님이라는 사람이 '따먹는다'라는 표현을 썼다.'라고 문자를 보냈다. 이 표현을 듣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'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가' 하는 것이었다. 그 말은 별것 아닌 사소한 이야기처럼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틈이 없었고, '내가 문제제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닌가'라는 생각에 그만 두었다. 그러나 일부 철없는 남자들이 여자와 잤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때 사용하는 '따먹었다'라는 표현이 강사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고 그러한 강사의 수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. (4월 1일 이 발언에 대해 자신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면서 '왕은 공녀를 따먹을 필요도 없었다. 공녀는 왕의 소유물이었다.'는 발언을 하였다. 당시 사회 시스템이 그만큼 가부장적이었다는 말인지, 아니면 공녀는 소유물이므로 굳이 따먹힐 필요도 없었다는 말인지는 알 수 없다.)

'따먹는다'라는 표현에 이어 '담배'이야기를 할 때, 나는 강의 스타일이 학생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인 줄 알았다. 수업시간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한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다. 학생들도 선생님의 말에 웃었고 조는 분위기도 쇠산되었다. 그러나 곧, '담배 피려거든 대신 여학생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라. 여자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놈들은 모두 내 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다.'라는 말을 하였다." 강사가 이 말을 함으로써,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웃은 남학생들에 의해 많은 휴먼 여성들이 순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생각을 했다. 여성은 당연히 담배를 안피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, 그런 인식 하에서 담배피는 여성은 '좀 이상한 여성'이 될 것 같았다. 그리고 '딸에 대한 모욕'이라는 말에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느껴졌고, 강의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대상화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.

수업에서 느꼈던 교실의 분위기는 선생님의 장단에 잘 맞추어가는 남학생들과 그에 맞추지 못하는 여학생들로 나뉘어 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평소 언어습관이 거칠기 때문에 '따먹는다'라는 식의 발언이 쉽게 아무렇지 않은 말로 생각되어 잊혀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. 앞으로 남은 많은 수업시간을 이러한 표현을 들으며 수업 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성중심적인 발언에 대해 신고를 하기로 했다.

강의명-일본근대사

강사-박환무

강의실-위당관 414호

강의시간-화요일 7,8,9교시

이 수업은 근대 일본에 대한 사학과 전공수업이다.

강사의 평소 언어습관은 거칠고 험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학생들은 대개 웃고 즐기는 편이다.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남학생이고 주로 고학번이다.

3월 12일 두 번 째 주 수업에서, 3시간 연강인 수업에서 한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...

강사는 "왕이 공녀를 따먹으면.."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.

또 이런 말도 했다. "학생들, 수업이 지루하니까 편한 자세로 들으십시오. 남학생들 담배 피도 상관 안합니다. (학생들 웃음) 창문 열어놓고 구석에 가서 피고와도 상관 안합니다.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요. 다만, 여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. 여학생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(학생들 웃음)"